



특허, 지구와의 화해

경 친 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라고 하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특허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늘날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이 모두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허를 기술경쟁력 확보의 주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연 특허제도는 인류가 만든 훌륭한 작품이며, 뛰어난 제도의 발명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특허제도는 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제도를 비롯한 물질적인 문명관에 근거한 산업발전의 장려에 따른 공업화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여 지구라는 혹성의 3분의 1을 사막화에 이르게 할 수 있고, 2100년도에는 지구상 동식물의 50%를 멸종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마츠우라(松浦)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구와의 화해』라는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이제 특허도 지구와 화해가 필요하다. 지구 환경보호가 인류의 당면한 공통과제가 되었다. 우리들의 고귀한 공유 유산인 지구, 인류의 하나뿐인 거처를 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 인류가 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면서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허를 활용하여 지구환경을 지키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특허기술은, 태양력 풍력 바이오수력 지열 해양 등의 에너지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분야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그 에너지를 얻는 연료전지 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친환경 기술개발 육성지원에 힘입어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연간 출원건수는 2001년 1,522건에서 2010년 5,572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하고는 있으나,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기간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친환경 코어(core)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특허기술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Eco-특허(친환경특허)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Eco-특허 평가제도란 현행 특허심사와 함께 환경 친화성 또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 정도도 심사하여 모든 특허권에 환경친화성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각종 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친환경 녹색 특허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 심사하여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친환경 기술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상의 지원책이 기대된다.

나아가서 IBM, 노키아, 캐논, 소니 등 일부 대기업들은 친환경 분야의 일부 특허권의 무상개방을 선언하고 인류 공생(共生)을 제창하고 있는 바,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의 과도기에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코아 Eco-특허 기술의 탄생과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과학자, 정책결정자 나아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12. 9 |



황동울 책임심사관
특허청 공조기계심사과